

예수 성탄 대축일

제1독서 : 이사9,1-6

제2독서 : 디도2,11-14

복 음 : 루가2,1-14

# 순정이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가2,14).



## 오시는 주님을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춤추라. 바다여, 우렁차게 소리질러라... 숲을 이룬 나무들도 환호성을 울려라”(성탄 밤미사 응송에서).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준비하고 고대하던 성탄 대축일입니다. 먼저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영혼 가득히 성탄의 기쁨이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주위의 모든 이웃,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전해지기를 빕니다.

구세주께서는 오늘 밤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 세계를 뒤덮었던 온갖 고통의 어두움, 우리 양심을 짓누르던 죄악의 검은 장막, 하느님 모르는 삶의 절망을 헤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두를 자신의 어깨에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그 어두움의 손아귀로부터 빼내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두움은 빛 앞에 물러설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하느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 타국에서 힘겹게 나그네 길을 가고 있던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마침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것도 점령국 로마의 군인들이나 나라의 권력층 혹은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사회에서 한켠으로 밀려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처음부터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 그분의 은총이 드러날 때는 늘 이런

식이어서, 사람들은 흔히 그분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지내지만 그 주인 공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에 그분을 참으로 만나려면, 우리 마음이 우선 가난하게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 밀려나 있는 이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힘 있고,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시며, 무엇이든 다 아시는 분으로만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느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만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느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하느님은 한마디 말도 못하시고, 우리가 도와드려야만 추위를 면하고 음식을 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갓난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온전히 우리의 처분에 당신의 생명을 맡겨두십니다.

우리가 이 아기를 보살피고, 온갖 정성으로 길러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가냘픈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같은 정성으로 보살필 때, 갓난 아기로 오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자매로, 어머니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마태 12, 50).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요한 1, 12).

주님의 성탄이 많은 사람의 새로운 탄생을 낳고, 그래서 나, 우리, 이웃, 사회, 세상, 온 우주가 새로 나기 위한 진통을 거쳐, 하느님의 자

# 맞이하기 위하여



너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을 향해, 희망으로 어두움을 헤쳐나갑시다.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로마 8, 21-25).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의 복음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가 2, 14)

1993년 12월 25일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 1. 가정이 건강해야

한해의 마지막 주일인 내일,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내일 성가정 축일이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은, 국제연합(UN)이 내년 한해를 ‘가정의 해’로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도 지금까지 그 어떤 주제보다 가정의 중요성을 자주 역설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심각한 가정 문제는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인간성 상실은 물론, 생명의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이 때때로 가정에서부터 침해당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가정의 보금자리가 담당해 왔던 중요한 기능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임 수술과 낙태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의 수호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사회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가정은 하나의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신앙을 가르치는 첫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수행해 나가야 할 소명 가운데 으뜸입니다.

가정의 해를 맞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와, 이를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안내서 「가정의 소명」(가정사목 위원회 편찬)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소명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성탄 기도

세상 어둠 아무리 깊다 해도  
마침내 별이 되어 오신 예수여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자체로  
사랑의 시가 되신 아기여

살아 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 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세상 일에 매여  
당신을 잊었던 사람들도  
오늘은 나직히  
당신을 부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온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  
진통 겪고 몸살 앓는 이 세상에  
울면서 내려오신 평화 아기  
기쁨 아기여

진정한 성탄 선물은  
당신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루고 나누어야 할  
평화와 기쁨뿐임을  
다시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 만난 기쁨으로  
첫눈 내리듯 조용히  
처음으로 속삭이게 하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모든 이웃에게—

· 글 : 이 해 인

